

2012 5·6 월호 제437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지구를 사랑하는 아주 착한 방법 - 메소드

m **method**
for the love of clean™



“어찌죠? 우리 아들이 욕실 세제를 마셨어요!”

에릭 라이언(메소드 CEO)은 한 고객이 메소드로 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일화를 들려주면서-

*"제품 포장에 내 휴대전화 번호를 넣었는데,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온 분은 어느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메소드 욕실 청소 세제를 마셨다며 몹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전화로 독극물 관리센터에도 연결한 상태였는데 그 세제에 어떤 원료가 첨가되어있느냐고 다그치더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아드님에게 물 한 잔만 먹이세요. 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뿌듯하더군요."

*집 스텐켈의 「Grow, 미래기업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중에서 (89페이지)

보기에만 깨끗하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더러움을 없애기 위한 제품이 오히려 환경을 더럽히고, 가족과 지구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함은 더러움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고무장갑이 없어도 걱정 없이 설거지를 하고, 식탁에 떨어진 음식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과 지구가 함께 진정한 깨끗함을 누릴 수 있도록 - 그것이 우리가 method를 만든 이유입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아주 착한 방법 - 메소드

method®

지금 메소드의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www.ilovemethod.co.kr•www.facebook.com/methodkorea

주부교실

2012 5·6
통권 제437호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생각해봅시다	4	흑염소에게 복덩이가 굴러오길 / 최광숙
전국지도자대회	6	사회통합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는 전국지도자대회
	9	사진으로 보는 전국지도자대회
의식조사	12	제증명수수료 병원마다 천차만별, 소비자 불만 커 / 본회 대전광역시지부
상담사례	14	소비자의 소리 / 김영란
알아봅시다	16	「다층 식품포장재」란?
에세이	18	첫사랑 / 신종선
소비자정보	20	자동차보험료, 이렇게 절약하세요
소비자주의사항	22	아웃도어 의류, 품질 불만으로 관련 분쟁 늘고 있어
지부소식	23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34	농수축산물 비교·체험 전시회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주부교실 5·6월호

발행일 : 2012. 6. 1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안명수
편집인 : 임경애
담당 : 원혜진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A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해럴드미디어
대표 박행환

비매품

〈표지사진 : 녹색가정만들기 실천 다짐대회(광주광역시지부, 5.15), 제4회 재활용품 악기를 이용한 음악공연대회(울산광역시지부, 5.19)〉



흑염소에게 복덩이가 굴러오길

최광숙 / 서울신문 논설위원

얼마 전

초등학교 3학년 조카로부터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흑염소 사진과 함께 복주머니가 그려진 그림이다. 거기에는 “흑염소에게 복덩이가 굴러오길”이라는 글귀도 있었다. 오후 한창 일하는 시간에 받아든 조카의 생뚱맞은 메시지에 다소 어리둥절했다. 웬 흑염소? 게다가 새해 덕담도 아니건만 흑염소에게 복이라니. 아무튼 조카가 메시지를 보낸 자체가 너무 반가워 급히 답장을 보냈다.

일단 흑염소가 귀엽다고 한 뒤 “너가 기르는 염소니?”라고 물었더니 아니란다. 두 어차려 흑염소를 화제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마지막으로 “흑염소에게 복을 비는 유빈이 마음이 착하다”고 조카를 칭찬해줬다. 나중에 여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 주말에 아빠와 함께 산에 갔던 조카가 우리에게 갇힌 흑염소를 보고 너무 불쌍하다면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전했으려란다.

그 말을 듣고 새삼 ‘공감 능력’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자기만 아는 줄 알았던 9살 조카가 우리에게 갇혔어도 말 못하는 동물의 신세를 가슴 아파하며 그에게 복을 기원하는 것을 보면서 다소 놀랐다. 어린 아이지만 그는 이미 공감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공감 능력’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상대방이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같이 아프거나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보면 공감 능력은 타인과 같이 웃고 울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서적인 능력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상대방과 같은 마음이 되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의 입장과 처지가 내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니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공감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

들이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 또한 쉽지 않다. 조카의 메시지를 처음 봤을 때 놓친 것이 있었다. 바로 흑염소 앞에 놓여져 있는 철조망이다. 내 눈에는 그저 흑염소만 보였을 뿐, 철조망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조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실제 존재하는 그 철조망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써 나는 조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소통할 때 사소해보이지만 무척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일이 많다. 마음의 눈을 밝혀 상대방과 공감할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내놓았듯 이제는 바야흐로 공감 능력이 중요한 시대다. 과거 사회를 지배하던 적자생존의 방식 대신 이제 공감이 인간을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물론 앞으로 미래사회까지 이끌 화두가 바로 ‘공감’이다. 주변에서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그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능력이 뛰어난 이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거기가 거기인 실력의 차이로 성공의 승패가 갈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실력은 기본이고, 거기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고 잘 어울리는, 즉 소통을 잘하

는 이들의 성취력은 높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11 총선에서 보았듯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아무리 잘나가도 지역 유권자들과의 공감이 부족한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거에서 쓴 잔을 마셔야 했다.

공감 능력은 사회생활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주부들의 경우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이라고 본다. 화목한 가정·편안한 가정을 이루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공감 능력은 빛을 발할 수 있다. 아무리 그들의 행동에 화가 나더라도, 실망하더라도 잠시 호흡을 멈춰 그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해보면 이해 못할 일이 거의 없다. 좋은 아내·엄마가 되려면 그들과의 공감 지수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주부들의 고민 중 하나인 시댁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친정 부모님께 잘 못하는 울케가 있다면 대부분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그런 울케를 흥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좋은 며느리인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 또한 울케와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 그럼 울케도 이해될 것이고, 부족한 자신도 냉정하게 바라보게 됨으로써 더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다. 공감 능력은 타인과의 소통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부단한 자기 성찰을 요함으로써 더 좋은, 나를 만들어줄 것이다. ■

사회통합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는 전국지도자대회

– 주부교실 지도자 1,200여명 참석해
지도사로서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 –

본회에서는 해마다 16개 시·도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회장단, 임원급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결속과 화합을 다지며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지도력 함양을 위해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4월 17일~18일 1박 2일 과정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회통합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는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란 주제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역할 모색과 함께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자 했다.

17일(화) 임경애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본회 깃발을 선두로 16개 시·도지부 회장단이 이끈 지부기가 입장하면서 대회의 시작을 알렸고, 주부교실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지도자들에게 공로패, 표창패, 10년 근속상을 시상하며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본회 안명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이면에는 성장위주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표출되었으며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이념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제성장은 물론 선진문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정착을 위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풍토 조성엔 힘써야 하며 타협과 공존을 위한 관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참석한 지도자 모두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당부했다.

내빈으로 참석해주신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인력의 활용이 중요하므로 본회의 활동을 치하하며 여성의 힘으로 사회통합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서줄 것을 부탁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격려사 대독을 위해 자리해 주신 이상진 제1차관 역시 주부교실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경제·사회발전을 이끄는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명한 여성 지도자들이야말로 사회통합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내빈들의 축사에 이어 송병희 본회 대전광역시

시지부 회장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우리의 다짐’ 결의문 선창에 따라 참석한 지도자 모두가 손을 들고 사회통합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 강연에서 김숙희 전 교육부장관은 “현대사회와 주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현대사회에서의 ‘가정’의 부활과 함께 주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의사이자 경제평론가인 박경철씨는 “자기혁명을 이끄는 공감의 힘”을 주제로 가치 있는 인생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적 모습을 닮아가며 진정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며 사람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과 타인의 손을 맞잡고 함께 귀하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 즉 ‘공감’이야말로 세상과 사회를 바꾸는 위대한 힘이므로 회원 모두가 ‘공감의 힘’을 발휘해주기를 부탁했다.

◆ 가스안전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결의대회

오후 5시 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지도자로서,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가스안전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본회 안명수 회장은 대회사에서 본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스안전사용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강화에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안전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철저한 안전의식으로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가스

안전사용에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대회 축사를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전대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여성 지도자로서 지역발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회 회원들의 뜻 깊은 활동을 격려하며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생활화 정착에 지속적인 참여와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감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가스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동영상 시청 후 가스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강정자 본회 전라북도지부 회장의 선창에 따라 주부교실 지도자 모두가 가스안전관리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 생활화에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했다.

대회에 이어 진행된 주제 강연에서 김경희 용마공영 대표이사는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란 주제로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도전정신’을 갖고 있다며 스스로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저녁식사 후 다시 한 자리에 모인 주부교실 지도자들은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 평소 간직해왔던 장기들을 마음껏 뽐내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식량안보를 위한 물사랑 한마음대회

다음날인 18일(수) 주부교실지도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안명수 본회 회장으로부터 사회통합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는 지도자로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 “식량안보를 위한 물사랑 한마음대회”를 가졌다.

본회 안명수 회장은 대회사에서 식량안보를 위해선 농업에 꼭 필요한 물 확보가 얼마나 시급하고 이에 평소에 물 절약 실천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 지를 이번 대회를 통해 주부교실 지도자 모두가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로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건호 K-water 사장의 축사를 대독한 김완규 부사장은 물 지킴이로서 지속적인 물사랑 운동을 전개해온 주부교실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과 함께 안정적인 물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축사에 대한 화답으로 물사랑 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강순희 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장의 선창에 따라 지도자 모두가 물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물사랑 운동 저변 확대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주제 강연을 맡아주신 고덕구 K-water 연구원 원장은 “식량안보와 물”이란 주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식량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물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물 안보 확보를 위해선 홍수, 가뭄 대비와 수질 환경을 개선하는 통합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물 절약을 위한 국민의식 개선 및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촉진을 위한 한마음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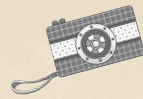
FTA로 인한 시장 개방 등으로 우리 축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확

대를 위한 소비자로서, 가정 식탁을 지키는 식품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촉진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내빈으로 참석해주신 오정규 농림수산물식품부 제2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식품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주부교실 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과 이병모 대한양돈협회 회장, 임관빈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의 축사에 대한 화답으로 주부교실 지도자 일동은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결의문을 채택했고, 김점숙 본회 경상남도지부 회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 모두는 우리 축산물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에 앞장서는 감시자로서, 우리 축산물을 애용하는 소비자가 되기로 다짐했다.

주제강연자로 참석해주신 권찬호 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업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축산 정책을 소개했으며, 서재걸 의사(자연의학 전문가)는 “행복한 자기경영, 건강도 재능이다”이란 주제로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가이드를 소개했다.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행사 일정을 마친 주부교실 지도자 모두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사회통합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여성 지도자로서, 봉사자로서의 역량강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내년 대회를 기약했다.



사진으로 보는 전국지도자대회



- 1 대회사 하는 안명수 본회 회장
- 2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16개 지부기 입장
- 3 공로패, 근속상 등을 받는 수상자들
- 4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의 축사
- 5 이주호 장관의 격려사를 대독하는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6 축가를 부르는 합창단
- 7 송병희 본회 대전광역시지부 회장의 결의문 선창에 복창하는 주부교실 지도자들



- ⑧ 축사를 해주시는 전대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 ⑨ 가스안전 사용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선창하는 강정자 본회 전라북도지부 회장
- ⑩ 김건호 K-water 사장의 축사를 대독하는 김원규 부사장
- ⑪ 물사랑 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선창하는 강순희 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장
- ⑫ '식량안보와 물'을 주제로 고덕구 K-water 연구원 원장의 강의
- ⑬ 첫날 주제강연을 맡아주신 김숙희 전 교육부장관, 박경철 경제평론가, 김경희 용마공영 대표이사

- ⑭ 오정규 농림수산물식품부 제2차관의 격려사
- ⑮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결의문을 선창하는 김점숙 본회 경상남도지부 회장
- ⑯ 축사를 해주신 남성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 이병모 양돈협회 회장, 임관빈 전국한우협회 부사장
- ⑰ 주제강연을 맡아주신 권찬호 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정책관, 서재걸 포모나클리닉 원장
- ⑱ 주제강연을 듣고 있는 주부교실 지도자들
- ⑳ 회원간 친목을 다진 '회원한마음대잔치'

제증명수수료 병원마다 천차만별, 소비자 불만 커

-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 병원따라 최대 200배 차이 -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진료기록부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토록 하고 있어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이에 본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 10일 ~25일 대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았던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조사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 응답자 86.2%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제증명 발급 경험 있어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을 발급 받았던 경험 유무에 대해 응답자(938명) 중 70.9%는 의료기관에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발급 경험이 있는 응답자(665명) 중 86.2%는 '보험회사' 제출용, 10.6%는 '학교' 제출용으로, 6.0%는 '법원 및 구청 등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았으며, 발급 의료기관에 대해선 45.7%는 '종합병원', 34.6% '외과(정형외과)', 23.3% '내과(소아과)' 순으로 응답했다. 발급 증명서 종류로는 응답자 63.3%는 '일반진단서', 50.7%는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 사본', 14.3%는 '상해진단서', 4.1% '장애진단서', 2.0%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응답했다.

◆ 병원마다 제증명수수료 달라, 최대 200배까지 차이나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 사본 발급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 사본발급비용으로 '1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응답자가 40.4%로 가장 많았고, '1천원 이상 ~ 3천원 이하'는 12.2%, '1천원'은 11.6%였다. 무료를 제외한 유료의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비용이 최저 1천원에서 최고 2만원으로 20배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 진단서 발급 경험이 있는 응답자(421명) 중 사본발급비용으로 '1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소비자가 66.0%로 가장 많았고, 발급비용이 최저 1천원에서 최고 4만원으로 40배 차이를 나타냈다. 상해 진단서 발급 비용의 경우 병원에 따라 최저 1천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00배 차이, 사망 진단서의 경우 최저 3천원에

서 최고 3만원으로 10배 차이를 나타냈다.

◆ 10명 중 8명꼴 '수수료 비싸다' 불만, '무료 발급' 가장 많이 원해

의료기관 방문 시 제증명수수료 비용 게시 여부에 대해 응답자(938명) 중 72.8%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했으며, 발급 경험자(665명) 중 83.8%가 제증명수수료 비용이 '매우 비싸거나 다소 비싸다'고 응답했다.

한편, 제증명수수료 적정 비용에 대한 질문에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 사본 적정 비용으로 응답자(938명) 중 56.1%는 '진료비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 사본은 무료발급 해야 한다'고 답했고, 17.7%는 복사비 수준인 '1천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일반진단서 적정 발급비용으로 응답자 52.9%가 '무료발급'이 적정하다고 답했고, 37.1%가 '1천원 이상~5천원 이하'라고 했으며, 상해진단서 적정 발급비용으로 응답자(938명) 중 45.9%가 '1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35.5%는 '무료발급 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애진단서 적정 발급비용으로 전체 응답자(938명) 중 38.2%는 '1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34.3%가 '무료발급 해야 한다'고 답했다.

◆ 제증명 발급 절차 까다롭고, 수수료 '상한선' 법제화 필요해

제증명 발급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선 응답자

43.0%는 '발급받는 대기시간이 길어서', 11.4%는 '여러 번 방문', 6.8%는 '본인 발급 고집' 순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으며, 제증명 발급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 61.0%는 '필요가 없어서', 22.0% '발급비용이 비싸 수령할 보험금과 큰 차이가 없어서', 11.0% '절차가 번거로워서' 순으로 답했다.

한편, 현행제도에 대해 응답자(938명) 중 87.3%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으로 44.3%는 '제증명수수료 비용 상한선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7.2% '보건복지부에서 제증명서 수수료 비용 상한선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 18.6% '행정기관에서 제증명서 수수료 비용 인하 유도', 7.8%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자율적 인하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 결론

조사 결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비용이 최저 10배에서 최고 200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료기관 내 제증명수수료 비용 의무 게시 소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와 관련된 현행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더 나아가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줄여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본회 대전광역시지부)

소비자의 소리

포장 뜯지 않은 어학교재, 청약철회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 거절해

내용 21세 여대생이 한달 전 쯤 학교로 방문한 어학교재 업체 직원으로부터 영어교재와 CD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권유받고 구매에 동의하였다. 택배로 교재를 배송받은 후 교재 5권과 비닐 포장된 CD를 확인한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20일 정도 지나서 업체로부터 입금요청을 받았다. 충동구매라는 생각에 사용하지 않은 교재에 대해 반품의사를 밝혔으나 업체에서는 환불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해 본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소비자의 경우 반품기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치 않을 교재에 대해 환불을 원했으나 해당 물품에 구매 후 14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는 명시가 되어 있고 방문판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상황이었다.

본 상담실에서는 교재업체에 반품도서 거래시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통상사용을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 후 계약을 해제요구 가능한 조항을 들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훼손이 없는 상태이므로 통상사용을 20%를 공제 후 환불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한 결과, 계약금액의 20%를 소비자가 계좌로 입금을 하고 도서를 반품하여 교재업체에서 청약철회하기로 합의하여 처리가 되었다.

**찾은 고장 일으키는 렌탈정수기 교환 원하는 소비자
에게 위약금까지 요구해**

내용 소비자는 렌탈 정수기를 등록비와 월 사용료를 부담하고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다. 정수기 사용 중 얼음 센서문제로 자주 고장이 나서 계속 수리를 받았고 3회의 교환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수리횟수가 10회에 이르러서 소비자는 정수기의 모델 교체를 원했으나 업체측은 교체를 거부하고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담하고 해지하라고 하여 본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소비자는 정수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제품의 센서부분의 문제로 고장이 잦다는 수리기사의 설명으로 모델 교체를 원하고, 렌탈 계약기간 만료 후 소비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해지를 원하지 않는 입장인 반면, 업체측은 수리와 교환으로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다. 본 상담실에서는 업체측에 정수기의 잦은 고장 수리 이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감안하여 계약 금액상의 동급인 다른 모델로 교체 가능토록 중재하였고,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없이 다른 정수기 모델로 교체해주시기로 협의 처리하였다.

**신용카드 제휴업체, 사은품 제공 명목으로 소비자
카드 결제 유도해**

내용 소비자에게 전화상으로 신용카드 회사 라면서 감사 사은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사은품 배송에 동의했다. 다음날 소비자에게 카드대금 25,5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이 문자로 발송되어 확인해 보니 남성화장품이 카드 결제가 된 것이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회사로 문의하니 카드회사측은 판매업체의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취소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본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신용카드회사의 제휴업체가 부당한 영업행위로 소비자의 동의를 유도한 건으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

다. 이에 본 상담실에서는 화장품 판매업체측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매유도를 한 점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결제 취소를 요구해 해당업체가 결제 취소 처리했다.

**인터넷 품질 불만 등으로 하루 만에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 요구해**

내용 A 통신사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자가 전화상으로 B 통신사로부터 인터넷 교체권유를 받고 B통신사의 인터넷과 인터넷TV로 교체했다. 저녁 시간대에 설치를 한 직후에 TV 화질이 흔들렸고, 채널이 81개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채널수가 10개가량 덜 나와서 설치기사에게 해지의사를 밝히자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하여 다음날 아침 해지신청을 하였다. 하루 만에 해지신청을 했으나 통신사측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라고 하여 본 상담실에 도움을 청했다.

처리 인터넷 결합상품 설치 후 해지 시에 위약금이 발생하나, 소비자 경우 계약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계약서와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본 상담실에서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조차 없는 상황이라 통신사측에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청하였고 통신사측은 해지위약금과 설치비 부담 없이 해지 처리해주었다.

(김영란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다층 식품포장재」란?

- 커피믹스 봉지, 스푼 대신 사용하면 안돼요! -

커피믹스, 과자 봉지로 널리 사용되는 다층포장재 사용과정에서 유해물질 등이 나올 수 있다며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이번 기회에 '다층 식품포장재'에 대해 알아보고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및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여보자.

◆ 다층 식품포장재가 뭐가요?

다층포장재란 2~3겹 이상의 플라스틱필름이나 알루미늄박 등을 접착시켜 만든 것으로 주로 과자, 라면, 커피믹스 등 식품포장이나 레트로트식품 포장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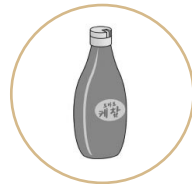
커피믹스 봉지



레트로트 포장재



고기만두 봉지



케첩 병

◆ 다층 식품포장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품의 종류에 따라 산소차단성, 내충격성,

차광성 등 요구되는 포장재의 특성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재질은 없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포장 재질을 적층시킨 다층포장재를 사용한다.

◆ 다층 식품포장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 롤에서 풀어지면서 접착제가 도포되고 오븐을 통과하면서 접착제의 건조과정을 거친 후, 알루미늄 증착 폴리프로필렌(PP) 필름을 접착제 도포면에 접합하여 다층 포장재를 완성한다.

◆ 다층 식품포장재에 식품을 포장하면 DEHP와 같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이 나와 건강에 해로운 거 아닌가요?

다층포장재를 구성하는 재질 중 식품 접촉면에 사용되는 재질인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에는 가소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

으므로 내분비계장애물질인 DEHP는 검출되지 않는다.

DEHP와 같은 가소제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를 유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이다. PE나 PP는 원래 유연한 성질을 갖는 재질이기에 때문에 PVC와 달리 제조과정 중에 별도로 가소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 다층 식품포장재에 대한 안전관리는?

다층포장재를 구성하는 재질 중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재질은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으로,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층포장재에 대한 국내 규격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 다층 식품포장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다층포장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층의 재질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해서 내용물인 식품의 종류에 따라 4가지 침출용매(n-헵탄, 20%에탄올, 4%초산, 물)를 선택하여 60℃에서 30분 또는 95℃에서 30분간 용출시킨 용출액에서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1-헥센, 1-옥텐 등의 용출여부를 검사한다.

◆ 다층 식품포장재의 인쇄성분이 내용물인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나요?

다층포장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층의 재질

중 가장 바깥 면에 인쇄하므로 인쇄성분이 식품으로 직접적으로 이행되지는 않는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인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하는 경우에도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 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용으로 커피를 짓는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커피믹스 봉지는 분말로 된 커피를 담는 용도로 제조된 것이다. 따라서 포장재를 스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오용하는 것이므로 금속제 등으로 된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커피믹스 봉지를 뜯을 때 인쇄면에 코팅된 합성수지제 필름이 벗겨져 인쇄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라면봉지에 직접 라면, 스푼, 뜨거운 물을 넣고 조리해서 먹어도 되나요?

라면봉지의 내면은 주로 PE나 PP 재질로 되어 있어 뜨거운 물을 붓는 정도에서는 통상 안전하다. 다만, 부분적으로 물리적인 변형이 올 수 있으며, 라면 봉지는 내용물의 변질 등을 방지하는 용도로 제조된 것이므로 라면봉지에 바로 조리해 먹는 것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오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면 조리 시에는 유리제나 금속제 등으로 된 냄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



첫사랑

신 중 선 / 소설가

요즘 들어 첫사랑 얘기가 난분분하다. 아마도 트렌드인 모양이다. 이 드라마 저 드라마 할 것 없이 다시 만난 첫사랑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첫사랑이란, 그 단어만 떠올려도 어쩐지 애뜻하고 그립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 가진 남녀가 다시 만나 예전의 사랑을 되살린다면, 그것을 첫사랑이란 이유만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첫사랑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새삼 되새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대리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드라마에 심취하다 보면 그릇된 첫사랑 커플에 대해 어느새 응원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가정을 이뤄 각자 아이까지 있는 남녀가 동창회에서 30년 만에 만나게 된다. 각자의 첫사랑이다. 그들은 만나는 순간 마음의 동요를 느끼게 되고, 급기야 예전의 순수했던 시절의 마음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 자식이 알게 되고 각자의 배우자에게 들통이 나도 서로에게 향하는 마음을 접을 수 없다. 우리의 어여쁜 여주인공이 눈가에 이슬을 머금고 말한다. 오늘 이 기억만으로도 몰래 3년 동안 행복할 수 있다고. 아, 아름답기 그지없는 풍경까지 배경으로 받쳐주

니, 이쯤 되고 보면 부정행위고 뭐고 간에 우리 모두 주인공의 심정이나 된 것처럼 아련해진다. 지천이 꽃인데다 신록이 우거져있고 아름다운 여주인공과 멋진 남자, 화면이 아름다워서인가 좇대 없느냐, 슬그머니 마음이 동하여 그 대단한 첫사랑 한번 읊어보고 싶은 생각 살짝 든다.

헌데 물어보자. 자신이 기억하는 첫사랑이 진짜 첫사랑인줄 당신은 어떻게 확신하는가. 살면서 사랑 한번 못해본 사람 있을까마는, 당신이 첫사랑이라 기억하고 있는 그 첫사랑이 리얼 첫사랑인줄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는가 말이다. 난 어떤 사랑에 첫사랑이란 타이틀을 붙여야 할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그룹과의 멤버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립학교에 다니던 나에 비해 그 애는 내가 추천에서 떨어진 사립엘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그 아이를 많이 좋아했다. 집에 가는 길이 같아 밤길을 함께 걷곤 했는데, 그 시간이 참 행복했고 집에 도착해서도 내내 그 아이를 떠올리느라 잠을 설쳤다.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다른 여자아이에게 극심한 질투를 느끼기도 했다. 이것이 혹시 첫사랑일까.

중1 때 학원에서 만났던 아이 이야기. 거짓말처럼 이름도 김철수라, 첫사랑 상대론 딱 들어맞는

다. 뽀얀 피부에 말수가 적고 의젓했다. 그 아이 옆에만 서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용기를 내어, 지우개 좀 빌려줄래? 이런 정도의 말은 붙여봤던 것 같은데, 그 이외의 대화는 기억에 없는 걸 보니 변변하게 말조차 섞지 못한 것 같다. 그 아이를 보기 위해 학원 참 열심히도 다녔다. 김철수가 내 첫사랑인 걸까.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남학생 얘기. 명동의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여대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다. 자신이 여자 측 미팅 주선자인데 한 친구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면서 내게 대타가 돼줄 수 없느냐며 사정했다.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도 되니까 자기 체면만 세워달란다.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뭐 어려운 일도 아니라서 나는 구원투수가 되기로 했는데, 파트너란 남자 자리로 인도되어 가니, 맏소사 요셋말로 외모가 대박이다.

두 다리의 힘이 쪽 빠지면서 인사도 하는 등 마는 등 털썩 맞은편에 주저앉았다. 남자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쳤으면서 얼른 나가고 싶다고 말한 후 벌떡 일어선다. 물론 그는 내가 대타로 투입되었다는 걸 모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기다란 다리였다 예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내가 좋아해마지 않는 청바지에 운동화 스타일이다. 이쯤 되니 친구와의 약속 따윈 안중에도 없어졌다. 난 망설임도 없이 미팅하러 온 여자인양 냉큼 그를 따라 나갔다. 물론 이튿날 바람맞은 친구에게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이후로 그와 몇 차례 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나를 대하던 남자의 태도가 어정쩡했던 것 같고, 이렇다 할 매듭 없이 흐지부지 돼버렸다. 자신의 외모에 비해 내가 뒤떨어진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차인 모양이다. 휴대전화

없던 그 시절, 집전화기 앞에 붙어살던 생생한 기억. 이것이 혹시 첫사랑인가?

영화 <박하사탕>에서 눈처럼 새하얀 박하사탕은 첫사랑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주인공 김영호의 첫사랑 김순임이, 자신은 사탕공장에서 하루에 천개씩 박하사탕을 만든다며 박하사탕을 김영호에게 건네며 배시시 웃던 그때, 그 둘의 사랑이 완성되어 결실을 맺었다면 김영호가 “나 돌아갈래”를 외치며 기차에 뛰어드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두 사람이 순수한 사랑으로 결합되었더라면 순수청년 김영호는 악귀로 변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첫사랑은 김영호의 경우처럼 더러는 본인의 삶에서 대단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첫사랑이란 존재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강렬하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며, 상대방 모르게 끄끙대던 짝사랑이 첫사랑일 확률도 높다. 그러니까 첫사랑이란 희미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유행처럼 읊어대는 아름다운 첫사랑 타령은 즉 어디까지나 드라마로 만들기에 적당한 소재일 뿐인 것이니. ■

작가 소개



경남 거창 출생. 이화여대 졸업. 자유문학 소설부 신인상, 제3회 자유문학상, 제2회 대한민국소설문학대상 수상. 장편소설로 <하드록카페> <비밀의 회원> <돈워리 마미>가 있고 소설집으로는 <누나는 봄이면 이사를 간다>와 <환영 혹은 몬스터>가 있다.



자동차보험료, 이렇게 절약하세요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 절약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절약도 알뜰 운전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다양한 할인특약을 활용하자!

- 주행거리연동특약(속칭 마일리지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7,000km 이하)에 따라 보험료를 5~13% 할인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를 줄이면 보험료도 아끼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
- 승용차요일제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평균 8.7% 절약할 수 있다.
 - ※ 소비자는 주행거리연동특약과 승용차요일제특약 중 어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면 보험료 할인!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의 연령이 “35세 이상” 등 특정연령이상인 경우,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단, 한정된 운전자 및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함.

◆ 블랙박스 등 장착시 보험료 할인!

- 현재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경위 파악 등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 장착시 회사별로 보험료를 3~5% 할인해 주고 있다.

- 교통사고 발생시 이를 보험회사 등에 즉시 통보하는 장치(차량진단 및 사고통보장치; MTS)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약 3%)해주는 특약도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경우 등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시 확인 필요함.

◆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 바로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은 최대 17.3%의 보험료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자신이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인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 무사고 운전과 교통법규 준수, 보험료 절약을 위한 최선의 방법!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5~10%가량 할인되며,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또한, 작년 2월부터 속도·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평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보험료 절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 보험료 비교조치를 통해 보험료 절약!

자동차보험료는 2001년 8월부터 자유화되었으며, 그 결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더라도 회사별로 보험료 수준이 상이하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http://ccs.knia.or.kr/index.jsp>)에서 본인의 가입조건을 입력한 후 최저가로 조회(1일 소요)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다양한 할인 특약(또는 특별요율) 현황

구 분	할인액	판매회사
주행거리연동 특약	전체 보험료의 5~13%할인 (先할인시 1~2%p 할인을 축소)	전 손보사(차티스 제외)
승용차요일제 특약	전체 보험료의 8.7% 할인 (先할인시 8.3% 할인)	전 손보사(차티스 제외) *先할인은 메리츠, LIG만 판매
운전자 및 연령범위 제한 특약	부부한정 특약의 경우 누구나 운전에 비해 약 20% 할인	전 손보사
블랙박스 장착	전체 보험료의 3~5% 할인	전 손보사(그린, AHA 제외)
사고통보장치 장착	전체 보험료의 3% 할인	일부 손보사가 준비중



아웃도어 의류, 품질 불만 등으로 관련 분쟁 늘고 있어

본회는 외부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매주 수요일 <의류 및 세탁물 심의센터>를 운영해 하자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 등을 심의해 분쟁 해결을 증대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아웃도어 의류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관련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다.

운동을 즐기거나, 가까운 산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아웃도어 의류, 용품(가방, 신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 의류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아웃도어 의류의 주요 기능인 **투습성, 발수성, 내수성** 등이 잘 되지 않아 제품 착용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회에 심의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어텍스 재킷 구입시 “완전 방수 제품”이라고 하여 구입하였는데 산행시 갑자기 내린 비에 원단이 젖을 정도로 물이 들어와 매장을 방문해 문의하니 안쪽으로 방수 코팅 처리 되어 있어 물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기능 이상 여부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판매처는 판매시 완전 방수되는 제품이라고 하면서 과대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와 업체간 충돌이 되고 있다. 고어텍스 제품은 완전 방수 개념 보다는 발수성과 내수성에 대한 기능도 있어야 하는데 비가 내릴 때 빗물이 옷 안쪽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특히 등산용 자켓의 경우 내수성이 충실해야 저체온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 심의 결과, 물 분사 확인시 바로 젖음이 확인되고 안쪽으로 코팅 처리 및 봉제선의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음이 확인되지만, 안쪽에 젖는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겉면이 젖은 상태에서 장시간 착용시 안쪽으로 어느 정도 수분이 흡수되어 젖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업체측에 원단 테스트한 시험 성적서 제시가 요망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 하자 원인 규명에 따르면, 업체측의 시험검사 불가 또는 시험성적서 제시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하자 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해야 한다(구입 후 2년 이내 제품에 한함) <정회중/ 본회 소비자국 간사>

◆ 주의사항

등산 제품은 야외에 장시간 입고 산행을 한다거나 강한 햇빛을 오래 받기 마련이다. 이때 땀과 먼지, 오염이 많이 묻은 상태에서 세탁을 자주 하지 않고 반복 착용한다면 색상에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자주 세탁이 요망되며, 세탁 전 반드시 의류에 표시된 취급 방법대로 관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의류에는 중성세제를 사용한 손세탁을 하도록 돼 있으며 드라이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 투습성 : 몸에서 나오는 땀을 증기 형태에서 흡수하여 외부로 발산시키는 성질
- * 발수성 : 표면에 물방울을 떨어뜨릴 때 습윤에 대한 저항성
- * 내수성 : 물의 누수 또는 침수에 대한 저항성

지부 소식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2개 시·군·구 지회



부산광역시지부

화훼류 원산지표시 캠페인

시지부(회장 김기묘) 회원 10명은 지난 5월 4일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 카네이션 등 수입 화훼류 증가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화훼농가 보호뿐만 아니라 원산지 둔갑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앞장섰다.



대구광역시지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농촌 체험 및 경제교육

시지부(회장 손기순)에서는 지난 5월 4일 다문화가족 34명과 함께 평광동 왕산농원을 방문해 사과꽃따기, 봄나물 채취 등 우리 농촌 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 23일에는 다문화 가족 37명과 함께 대구시민햇빛발전소,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견학으로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과 함께 경

제2기 상담원양성교육아카데미 실시

시지부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문 상담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2일 시지부 강의실에서 회원 및 주부 70여명을 대상으로 <제2기 상담원양성교육아카데미>

를 열었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노미란 강사는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구입 및 사용법 설명과 함께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소개하며 의료기기 사용시 주의사항을 알려 주었다.



에너지절약 캠페인

시지부 회원 35명은 5월 18일 죽전네거리에서 출근길 운전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력부족을 대비한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소비자모니터 역량강화교육

4월 6일부터 5월 25일 매주 금요일 8회에 걸쳐 분홍빛으로병원 교육실에서 회원 및 주부 83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모니터 역량강화를 위한 교

육을 실시했다. 5월 18일에는 대구 소비자연맹 교육실에서 회원 및 주부 60명을 대상으로 <Smart한 소비자되기 교육>이란 주제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제공으로 스마트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했다.



HACCP(해썹) 지정 식품공장 견학 및 원산지표시 캠페인

시지부 회원 42명은 5월 25일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인 HACCP 지정 식품공장인 '문경 싱그람영농조합'을 방문해 식품 제조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안전한 식품 선택 요령 등을 알게 되었다. 5월 30일과 6월 1일 회원 20여명은 관문 시장 등 전통시장 일대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농산물 부정유통 방지에 앞장섰다.

결혼이주여성 소비생활교육

5월 10일~24일, 6월 7일~21일까지 매주 목요일 6차례에 걸쳐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지구와 환경문제를 설명하며 녹색소비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다문화가족대상 녹색소비생활 실천교육>을 실시했다.



인천광역시지부

명예감시원교육 및 캠페인 참여

시지부(회장 이순애)에서는 지난 5월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 강당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52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중요성 등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했고, 17일 신기촌 시장에 열린 민관합동 물가안정 캠페인에 동참해 시

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광주광역시지부

노인대상 소비자교육

시지부(회장 박영희)에서는 지난 5월 14일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에서 어르신 100여분을 대상으로 다단계·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과 같은 악덕상술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홍보 캠페인

시지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동구 장동 일대 음식점을 대상으로, 18일 북구 장양동사무소 주변에서, 21일 북구 용봉동사무소 주변에서, 24일 동구 궁동 일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

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울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시지부 회원 10여명은 5월 15일과 25일 남광주시장과 말바우시장에서 각각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대전광역시지부

스승의 날 기념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시지부(회장 송병희)에서는 5월 14일 유성호텔에서 점차 퇴색되어 가는 스승의 날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

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며 교육공동체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각 급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분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편지 등으로 서로를 격려, 건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울산광역시지부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첫발 내닫기> 교육

시지부(회장 박보봉)에서는 전업주부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5월부터 7월까지 12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울주군지회 강당에서 전업주부 35명을 대상으로 <북아트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환경탐사대 활동 및 <작은 도서관 어린이 과학캠프> 운영

시지부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과 13일 청소년환경탐사대 회원 80여명과 함께 과학연구단지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같은 날 청소년자원봉사단 50여명과 함께 동천체육센터에 모여 태화강대공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태화강 물길따라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5월 15일과 26일 햇빛도서관, 미도파도서관, 봉화도서관, 삼남봉화도서관 4곳에서 각각 초등학교 4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학교육을 통해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작은 도서관 어린이 과학캠프>를 운영했다.



<제4회 재활용품 악기를 이용한 음악경연대회>

5월 19일 울산과학관에서 실생활에서 청소년들에게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실천을 유도하고자 <제4회 재활용품 악기를 이용한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삼일여고 양미리팀이 대상(울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고, 양지초등학교 양지햇살팀이 금상(울산광역시의회장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지부

농산물명예감시원 교육 및 소비자교육

도지부(회장 박명자)에서는 지난 5월 15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85명과 시·군지회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명예감시원 교육을 실시했고, 이후 주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 및 방문판매 등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 정보 전시회>개최

도지부에서는 5월 30일 제27회 '경기도여성의 날' 행사가 열린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1층 로비에서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개최해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각종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경기 농산물 안전성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부천시지회(회장 안현숙) 회원 5명은 5월 21일 부천 북초등학교를 방문해 경기 농특산물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교육하면서 아침밥 먹기

의 중요성도 함께 홍보했다. 이후 부천재래시장에서 경기G마크제품과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결혼이주여성 우리 문화 체험

수원시지회(회장 최규숙)에서는 지난 5월 2일~4일까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와 수원시에절교육관에서 각각 결혼이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솜씨·맵씨>라는 주제로 고추장, 된장 담그기를 비롯해 송편 빚기, 김치 담그기 등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5월 7일에는 회원 40명이 영통 갤러리아 백화점 일대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13일 회원 30명은 수원제1야외음악당에



서 열린 <제5회 수원시 다문화 한 가족 축제>에 참석해 행사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캠페인 및 봉사활동

광명시지회(회장 장대숙)에서는 지난 5월 2일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양재동 화훼꽃시장에서 열린 <우리 꽃 지킴이 결의대회>에 참여해 수입 화훼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가 속에서 우리 꽃을 지키는 소비자로서의 결의를 다지며 국내산 화훼 이용에 앞장섰다. 또한 22일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2001 아울렛 철산점 앞에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구리시지회(회장 정순진) 회원 10명은 5월 2일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구리토평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23일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2명이 구리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남양주시지회(회장 박순자) 회원 8명은 5월 2일~4일 가전 3사,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A/S 직원들과 함께 퇴계원면 주공아파트, 와부읍

주공아파트, 평내동 주공아파트에서 각각 이동순회상담센터를 운영해 무상 점검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섰다. 5일 회원 4명은 와부읍 삼패리 한강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해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성남시지회(회장 강용선) 회원 7명은 5월 3일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진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해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회원 10명은 상대원 2동 복지관을 방문해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안양시지회(회장 이영옥) 회원 10명은 지난 5월 7일 호계 노인복지관, 15일 동안 노인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1일~4일, 14일~18일, 28일~31일 봉사요원 78명이 교대로 안양시 아나바다 매장에서 재활용품 판매 활동을 전개해 판매 수익금 전액을 연말 모자가정 돕기에 사용키로 했다.

오산시지회(회장 장춘화)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은 5월 1일, 15일, 29일 시내 중·대형마트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점검활동을 실시했고, 식당 및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요금 지도 점검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5월 2일 회원 6명은 원동 남부북

지관 4층 식당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10, 14일, 18일에는 시내 식당, 정육점 등을 다니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용인시지회(회장 장복희)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1명은 5월 18일 중앙재래시장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앞장섰다.



파주시지회(회장 김순자) 회원 8명은 5월 8일 조리읍 봉일초등학교 주변에서 깨끗한 파주시 주변 환경 만들기에 참여했고, 18일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중식배식 후 설거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평택시지회(회장 박계숙)에서는 5월 8일 회원 3명이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12가구를 방문해 쌀과 고기 등 식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고, 1일~31일까지 북부여성회관에서 회원 40명이 교대로 북카페를 운영해 다양한 도서를 무료로 대여해 지역 주민의 도서관 문화 활동

의 기회 제공과 함께 여가 선용에 앞장서고 있다.

여주군지회(회장 권영림)에서는 지난 5월 7일~17일 열흘 동안 엑스포광장에서 열린 도자기 축제에 참여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고, 8일, 22일, 25일, 30일 군내 시장 일대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캠페인 및 감시활동을 실시했다.

강원도지부

봉사활동

태백시지회(회장 오영희) 회원들은 지난 5월 5일 오투리조트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해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8일 어린이날에는 독거노인 10분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선물과 함께 노년의 삶을 위로해드렸다. 14일에는 회원 6명이 태백노인전문요양원, 17일과 31일에는 회원 8명이 태백시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5월 25일에는 일일찾집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14명을 초대해 강릉 주문진소돌해변으로 아라나비 체험 및 오죽헌 답사 기회를 제공하며 위

로 격려했다.



평창군지회(회장 박순덕)에서는 5월 3일 평창문화복지센터 4층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11일에는 회원 5명이 평창군청 마당에서 열린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홍성군지회(회장 이영표) 회원 6명은 홍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150분의 중식 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회원 7명은 5월 21일 읍내 곳곳에서 쓰레기줍기 등 깨끗한 거리 만들기 등에 동참했다.

횡성군지회(회장 홍근표) 회원 5명은 매주 월요일마다 군내 보건지소를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을 위한 목욕 봉사를 실시했고, 5월 24일 회원 8명은 다문화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다문화 멘토 결연 및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다문화 가정과 멘토 결연을 맺는 등 행사 도우미활동을 실시했다.

회장 이·취임식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예절교육

원주시지회(회장 권순형)는 지난 5월 8일 안명숙 회장의 사임으로 권순형 신임 회장이 취임했다.

인제군지회(회장 김미례)에서는 5월 11일 인제문화원에서 김미례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있었으며, 16일 회원 12명이 기린면 복지회관에서 다문화가족 20명을 초대해 우리 고유의 인사법, 한복 입는 법, 차 마시는 법 등 예절교육을 실시했다.



충청북도지부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도지부(회장 최광옥)에서는 5월 11일과 18일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50명이 육거리시장과 터미널시장,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섰다.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 및 견학

5월 26일 청주시 수곡1동 주민센터에서 회원 및 주민 56명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폐기물 분류배출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했고, 회원 45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인 청주자원화(주)를 방문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을 직접 보면서 자원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었다.

봉사활동

음성군지회(회장 김영옥) 회원 15명은 5월 25일 음성군여성회관에서 경로식당과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진천군지회(회장 최경옥) 회원 10명은 5월 16일 생거진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을 위한 식사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충청남도지부

물가안정 캠페인

도지부(회장 조춘자) 회원 40여명은 지난 5월 11일 공주시 변화가 일대에서 합리적인 물가안정이 곧 가정과 지역경제, 국가경제의 초석임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적극인 동참을 호소했다.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지도자대회

도지부에서는 지난 5월 29일 충남 통일관에서 회원 및 내빈 20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충남 16개 시·군지회별 모범회원 16명에게 도지부 회장상을 수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 및 우리 농산물 바로알기 교육을 비롯해 충남 여성근로자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 및 역량 강화에 힘썼다.



우리 농산물 바로알기 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

연기군지회(회장 신옥순) 회원 15명은 지난 5월 24일 조치원 재래시장 입구에서 우리 농산물 바로 알기 및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홍성군지회(회장 최의자) 회원 30

명은 5월 5일 용봉산을 찾아가 어린 이날을 맞아 관광객이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전라북도지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문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도지부(회장 강경자)에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 도지부 교육실에서 회원 및 주부 4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어 스토리텔링 전문지도사 양성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위생감시활동 및 봉사활동

군산시지회(회장 박희순) 회원 5명은 5월 19일 전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여할 선수단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김제시지회(회장 문순희) 회원 8명은 5월 4일 노인요양시설인 '평강

의 집'을 방문해 선물과 다과 대접, 목욕봉사 등으로 노년의 삶을 위로해드렸다. 11일에는 회원 6명이 무주읍예천문화원에서 열린 노인잔치에 참석해 행사 진행을 도왔다.

남원시지회(회장 박문화) 회원 5명은 매주 1회 만원경로당을 방문해 청소봉사를 비롯해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에게 다과를 대접하며 말벗이 되어드렸다.

익산시지회(회장 김채숙) 모니터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7명은 매주 1회 시내 음식점을 방문해 주방 위생 및 화장실 청결 상태를 점검했다.

정읍시지회(회장 김순자) 회원 12명은 여성봉사관에서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으며, 모니터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4명은 5월 25일~27일 초등학교 근처 문방구,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량식품 점검 및 판매금지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부안군지회(회장 최덕례) 회원 20명은 5월 4일~6일 부안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부안마실축제에 참여해 행사 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21일에는 회원 18명이 천운천 일대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깨끗한 하천 만들기 운동에 동참했다.

완주군지회(회장 안춘자)에서는 매주 1회 군내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귀반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장수군지회(회장 양순옥) 회원 18명은 일손이 부족한 군내 과수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진안군지회(회장 원성희) 회원 30명은 5월 15일 군내 거주하고 계신 독거노인 6분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며 쓸쓸한 노년의 삶을 위로해드렸다.

전라남도지부

녹색가정만들기 실천다짐대회 및 녹색생활 실천 교육

도지부(회장 이승자)에서는 지난 5월 15일 화순남면종합복지관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녹색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녹색가정

만들기 실천다짐대회)를 가졌다. 1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회원 115명을 대상으로 백순기 동신대학교 환경학과 교수를 초빙해 '세상을 Green 여성으로, 녹색성장을 키우는 힘'을 주제로 녹색생활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



We Green 매니저 위촉 및 7대 약속 실천 결의대회

도지부에서는 5월 17일 화순남면 종합복지관에서 회원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We Green 매니저 위촉 및 7대 약속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녹색생활문화 실천 및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에 힘쓰며 어려운 이웃에 작은 나눔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순천 환경서포터즈 실천운동

순천시지회(회장 신애란) 회원 45명은 5월 23일 동천 (구)비행장 일대에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순천 환경서포터즈 실천운동으로 쓰레기 줍기 및 잡초 제거 등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담양군지회(회장 이영희) 회원 27명은 5월 1일~6일 죽녹원 일대에서 열린 대나무축제에 참여해 무료 음료 제공 등 행사 진행 도우미 활동을 실시했다. 매주 화요일 담양여성회관에서 결혼이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태극부채춤' 강습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친근감 제공으로 한문문화 적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다.

완도군지회(회장 정혜덕) 회원 25명은 지난 5월 4일~6일 완도 해변공원에서 열린 장보고축제에 참여해 해초삼각김밥만들기 체험 부스 운

영 등 행사 진행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장흥군지회(회장 채은아) 회원들은 어버이날인 5월 8일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를 마련해 쓸쓸한 노년의 삶을 위로해드렸다.

진도군지회(회장 김영애) 회원 18명은 5월 3일~6일 진돗개 사업소 일대에서 열린 진돗개 페스티벌에 참여해 무료 음료 제공 등 행사 진행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화순군지회(회장 강금순) 회원 21명은 5월 3일 군내 상가 밀집지역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말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환경정화캠페인을 전개했다.

경상북도지부

봉사활동

경산시지회(회장 임순희) 회원 7명은 지난 5월 7일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중식 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주시지회(회장 박추자) 회원 20명은 5월 7일 안강 노인정을 방문해 어버이날 잔치를 마련해 독거노인 30분에게 선물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며 노년의 삶의 위로해드렸다.

구미시지회(회장 손창순) 회원 8명은 5월 4일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중식 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문경시지회(회장 도은실) 회원 3명은 매주 금요일 문희 노인대학을 방문해 중식제공 봉사활동, 17일에는 회원 4명이 제일요양병원을 방문해 목욕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안동시지회(회장 박정숙) 회원 6명은 5월 5일 안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국제탈춤 페스티벌에 참여해 관광객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했다.

영주시지회(회장 김옥순) 회원 8명은 5월 16일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만남의 집을 방문해 무료급식 제공을 위한 음식 조리, 배식 및 설거지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상주시지회(회장 박정자) 회원 10명은 5월 24일 한국부인회 회원들과 함께 화남면 소재 보림원 요양원에 계신 경증 어르신들을 모시고 천안 독립기념관 나들이를 하며 쓸쓸한 노년을 위로해 드렸다.



포항시지회(회장 남순례) 회원 30명은 매주 월요일 북구 학산동 영세민 주공 아파트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20가구에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 및 세척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봉화군지회(회장 이유정) 회원 4명은 5월 16일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목욕봉사활동을 실시했고, 17일에는 회원 6명이 유리요양원을 방문해 경로잔치를 마련해 노년의 삶을 위로해드렸다.

영양군지회(회장 최계숙) 회원 9명은 매주 월요일마다 군내 복지회관을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조리 및 배달 봉사활동, 5월 19일에는 회원 15명이 일원산에서 열린 영양 산채한마당 축제에 참여해 1000여명의 관광객에게 제공할 비빔밥 만들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울릉군지회(회장 최윤정) 회원 3명은 5월 10일 도동소공원에서 산나물 채취체험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무료 음료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칠곡군지회(회장 김미연) 회원 9명은 5월 17일 군내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식사를 대접하면서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경상남도지부

<한국대표 스타 팜> 현장 체험

도지부(회장 김점숙) 회원 45명은 지난 4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선정한 우리나라 친환경농업과 GAP농업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농장인 스타 팜 중 하나인 진주시 소재 류진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농촌 체험 기회를 가졌다.



알뜰주부 감사장 수여 및 건전 소비문화 정착 캠페인

통합 창원시 마산지회(회장 이수련)에서는 해마다 창원교육지원청과 함께 건전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한 알뜰 주부들을 대상으로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5월 3일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학부모 109명을 선정해 알뜰주부 감사장을 수여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또한 회원 33명은 하니방송, 가양상가 인근 지역에서 이

동소비자 상담센터 홍보와 함께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환경정화활동

창녕군지회(회장 박복남) 회원 12명은 5월 13일 계성면 옥천계곡 일대와 인근 주차장 등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장바구니 물가조사

도지부(회장 강순희)에서는 매주 화요일 물가모니터 5명이 물가안정 및 소비자 물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도내 중대형매장 및 재래시장 14개 업소에서 기초생활품 7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실시했다.

2012년 청소년 생태기행

도지부에서는 5월 26일 저탄소 녹

색성장을 이끌어 갈 주역인 청소년 10명과 함께 <2012년 청소년 생태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라산 둘레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기회 제공과 함께 친환경의식을 함양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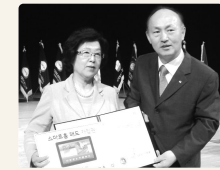
실버세대를 위한 소비자 의식 교육

도지부에서는 5월 23일 동부노인대학 강당에서 노인 소비자 100여분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실버세대가 점차 소비의 중심세대가 되면서 관련 소비자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법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식교육을 실시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 경기도지부 박명자 회장 아름다운 봉사상 수상



박명자 경기도지부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제27회 경기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름다운 봉사상>을 수상했다.

◆ 서울특별시지부 관악구지회 윤묘근 회장 관악구민상 수상



윤묘근 서울특별시지부 관악구지회 회장은 지난 5월 12일 관악산 주차광장에서 열린 '관악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관악을 빛낸 주민으로 각종 환경사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친환경 활동을 인정받아 환경부문 <관악구민상>을 수상했다.

주부교실게시판

■ 농수축산물 비교·체험 전시회

본회는 수입농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산 농산물 식별 방법 홍보 및 원산지제도의 자율적 정착 유도를 위해 <농수축산물 비교·체험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7일~18일 서울광장에서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 지역 내에서 11회의 전시회를 가져 소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올바르게 구분해 선택할 수 있는 식별 요령을 습득해 식재료 구매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 기 간 : 2012년 4월~10월(11회차, 35일)
- 장 소 : 서울광장 외
- 전시품목 : 국내산 및 수입산 주요 농수축산물 34종 68개품목

■ 의류 및 세탁물 피해 상담 및 구제

본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와 업체간 의류 및 세탁물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의류심의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발생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해 소비자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매주 화요일 9:30~17:3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또는 킷서비스 이용(지방에 한해 택배 가능)
- 접수문의 : (02) 2265-5870, 2273-6300, 2485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여름철 냉방온도 실태조사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에너지 과소비 건물을 중심으로 적정 냉방온도 준수 실태조사 및 에너지 절약 실천 홍보 캠페인을 각 2회씩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냉방온도 실태조사(2회)	에너지절약캠페인(2회)
일정	2012년 7월 2일~14일(1차) 2012년 8월 8일~16일(2차)	2012년 7월 26일 2012년 8월 21일(예정)
대상	백화점, 은행 등 다중이용 시설 총 1200곳	일반 시민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중랑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
- 문 의 : (02)3409-1948~9

희망이 흐르는 대한민국

물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원입니다.
생명을 키우고, 에너지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물.
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채워갑니다.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water

수자원시설 건설·관리
• 소양강, 충주댐 등 전국의 16개 다목적댐과 수자원시설 운영
•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용수공급

상하수도 건설·관리
• 전국 상수도 생산량의 49%를 차지하는 3,415백만㎡ 공급
•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하수도 통합 운영·관리

국가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
• 창원, 구미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 의산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신도시 조성

녹색성장 사업
• 사회초립발전소, 합천호 수상태양광, 아라뱃길 풍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사업 통합 운영·관리

해외사업
• 40여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21개국에 물기술 수출

국민건강보험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더욱 아껴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이
OECD 30개국 중 5위로 평가되었습니다.
- 기대수명(80.3세)이 OECD국가
평균(79.2세) 이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 1인당 월평균 29,765원의 보험료를 내고
57,760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가 재정의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초슬림 베젤의 시네마스크린으로
독보적인 **3D** 화질을 보라!



LM9600
시네마 스크린 디자인 • 내 맘대로 3D 입체감 조절 가능
3D 시우드 설정 가능 • 음성과 동작까지 인식하는 매지모션
시네마 3D 엔진 채용으로 완벽한 입체영상 구현
김박입 없는 시네마 3D 안경

TV는 **3D** 시대 **LG 시네마 3D** Smart TV

IOPE 스킨리포트



이제, 나이에 지지 않아요 진화된 레티놀이 5가지 주름을 관리하니까

5가지 주름케어로 링클케어, 리얼이 되다

- 깊은 주름
- 표정 주름
- 모공 주름
- 미세 주름
- 속 주름



NEW
주름개선기능성 화장품

40 ml / 1.35 FL OZ

레티놀 에이지 코렉터 IOPE